

# 오피니언 리더 10년, 대안을 논하다

## ‘불교평론’ 9월 12일 창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 테라와다와 동반관계

#### 임승택 교수 주장

테라와다(上座部)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보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파불교다. 임승택 경북대 교수는 한국 테라와다불교(대표 뽀나와로)가 8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 전통과 테라와다불교’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테라와다불교와 한국불교의 공생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주제발표 ‘한국 불교의 현실에 비춰본 테라와다불교의 현황과 과제’에서 “한국불교는 테라와다불교를 소승불교라 폄하해서 안 되고, 테라와다불교도 한국불교의 존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불교가 지닌 우수성을 바탕으로 테라와다불교를 하나의 모범사례로 참고해 경쟁자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1999년 겨울, 불교지성인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놨다. ‘불교의 현대적 해석’ ‘불교를 통한 사회비판’ ‘사회 속에서의 불교 이해’를 모토로 창간한 주간 <불교평론> 창간부터 줄곧 <불교평론>(편집인 홍사성)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에 대한 불교적 비판을 선도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불·여름·가을·겨울, 철마다 찾아온 <불교평론>에는 불교계는 물론 사회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비평과 비판이 있었다. 정보의 전달자에 그치지 않고 열림을 통한 소통을 실현하며, 불교계의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매 호 참신한 주제로 기획된 특집은 불자와 비불자, 출가자와 재가자, 일반불자와 불교학자 등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매 호 수록되는 20여 편의 논문은 중진학자들의 예리한 안목과 신진학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창간 10주년을 맞은 <불교평론>

어를 세상에 소개하는 창구가 됐다. 매 호 게재된 수많은 콘텐츠들은 <불교평론> 사이트(www.budreview.com)를 통해 과감하게 무료로 공개됐다. 매 호 발행되는 3000부의 책자는 사회 곳곳에서 지혜가 필요한 곳에서는 문수보살로, 행이 필요한 곳에서는 보현보살로, 경책이 필요한 곳에는 팔부신장의 화현으로 나누어 왔다.

지금까지 배출된 논문 800여 편은 일반불자 뿐 아니라 불교학 전공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인용할 정도로

<불교평론>의 콘텐츠는 공신력도 갖췄다.

현재 <불교평론>의 독자는 3000여 명, 사이트에 접속해 개별적으로 콘텐츠를 접하는 사용자까지 합하면 매월 1만 여 명이 넘는다. 독자·필자 중에는 불자가 아닌 개신교 등 타종교 지식인과 서양철학자 등도 있다. <불교평론>은 그야말로 현대판 이관사관 아담법석의 장이다.

지난 10년간 불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불가지성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불교평론>이 창간 10

주년을 회향하는 또 하나의 법석을 마련했다.

계간 <불교평론>은 9월 12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행사는 ‘문명사적 대전환 불교가 대안인가’를 주제로 열리며, 이도홍 한양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이어 △연기적 독존주의와 열린 공동체(박병기 교원대 교수) △사성제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이창재 프리오드 정신분석연구소장) △자아중심적 세계에서 연기와 공의 불교적 세계로(조은수 서울대 교수) △불교와 마르크스주의의 동양성(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탈현대철학의 동양성과 차이의 높에서 벗어 나기(박치완 외국어대 교수) △진화론과 뇌과학으로 조명한 불교(김성철 동국대 교수)가 발표된다. (02)739-5781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감로탕·불교언어 논문 눈길

#### 미등 스님 “민간생활 반영”

#### 윤희조 박사 “시대마다 표현 달라”

“감로탕에는 조성 당시의 민간생활이 반영돼 있다.” 미등 스님

“초기불교 언어는 관습적 표현을 중시하고 윤리적인 함의를 담았고, 상좌부불교 언어는 표현의 문제, 유부의 언어에서 진리의 차원 문제를 강조했다. 각 학파의 언어적 특징은 이제설로 구분된다.” (윤희조 박사)

학술행사와 가을 학위수여식을 통해 불교학과 관련한 다양한 논문이 쏟아지는 때 각각 감로탕과 불교적 언어관을 주제로 한 논문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미등 스님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장 김영식)이 8월 27-28일 서울대 신양인문학술정보관 등에서 ‘한국의 기록문화와 법고창신’을 주제로 개최한 제2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스님은 주제발표 ‘조선시대 감로탕화 하단장면과 사회상의 상관성’에서 조선시대 조성된 감로탕화의 하단 속도유희상에 표현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데 주목해 논지를 펼쳤다.

감로탕화는 수록제나 49재 때 쓰이는 의식용 불화로 하단에는 속도유희상이 표현돼 있다.

미등 스님은 “감로탕화는 하단에 표현된 추천대상과 구제대상을 속도유희에서 해탈시키는 장치로 중단에 시식의례를 설정하고 있다. 중단에 그려진 의식을 통해 인로왕보살의 인도를 받아 불보살의 세계로 극락왕생하는 상승적 장치로 돼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감로탕화 하단에 표현된 내용과 여제의 대상을 통해 조선시대 원혼과 고훬에 대한 관념을 읽을 수 있다”며 “감로탕화

하단의 장면을 통해 일반 민중들의 삶과 인식세계를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감로탕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늘날 조성되는 감로탕화는 민족간 이념의 갈등,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산업사회로의 변화된 모습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서울불교대학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희조 박사는 학위논문 ‘불교에서 실제와 언어적 표현의 문제’에서 불교적 언어관을 해석했다.

윤 박사는 “불교에서 언어는 진리로 이끄는 수단으로 긍정적 역할도 하지만 회론과 분별과 견해로 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희조 박사는 “불교에서는 언어적 표현에 의해서 실재를 기술하기 보다는 직

접적인 지각에 의해 실재를 증시하기를 강조했다”며 불교의 자성(自性)을 △실체로서의 자성(초기불교의 아트만 등) △찰라 생멸하는 현상으로서의 자성(중관의 무자성·공 등) △다른 것과의 구별에 필요한 자기동일성으로서의 자성(유부의 자성)으로 구분했다.

윤 박사는 “불교의 언어관에서 그 변화의 연속성은 자성에서 찾을 수 있다”며 자성과 이제설(세속제와 제일의제)로 초기불교 등의 언어적 특징을 밝혔다.

한편, 올 가을학위수여식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동국대 불교학과, 선학과, 미술사학과에서 7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광 스님(서울 능인선원)을 비롯해 이화여대에서도 1명의 박사가 배출됐다.

조동섭 기자



미등 스님



윤희조 박사

### 원효 학술상 제정

#### 2010년 5월 첫 시상

원효의 사상을 현대 학문과 연계시킬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원효 학술상’이 제정된다.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한구·성균관대 교수)는 ‘원효 학술상’을 만들어 2010년 5월 첫 수상자를 선정·시상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원효 학술상’은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철)의 지원을 받아 △교수 △박사 후 연구자 △학부-박사과정생의 3개 영역별로 총 3000만원의 연구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이한구 교수,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철 상임이사 등 7명으로 구성했다.

조동섭 기자

### ‘천수주’서 시작돼 ‘천수경’ 성립

#### 한국선리연구원 발표회서 이성운씨 밝혀

<천수경>은 전국 사찰에서 <금강경> <지장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과 함께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 중 하나다. 현행 <천수경>은 어떻게 성립됐을까?

동국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성운씨는 한국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이 8월 31일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천수경>의 구조와 의례 등을 밝혔다.

이씨는 주제발표 ‘현행 <천수경>의 재검토’에서 △‘천수주’를 활용하는 발원의례가 원 의례로 확립됐다는 점 △‘천수주’를 중심으로 몇몇 의례가 결합해 저변송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 △저변 송주 소

예참 이후 도입되면서 존재행법과 함께 현행 <천수경>의 기본 골격을 갖췄다는 점 △참회계·진언에 삭제와 추가를 반복하며 현재의 모습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운씨는 “현행 <천수경>에는 발원성취·엄정도량·참회서원·준제관법·멸악취 의례들이 모여서 삼매수행과 염불삼매 등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유근자 동국대 외래강사는 ‘간다라의 불전 미술과 탄생 도상’을 통해 초기불전 미술 속의 탄생 관련 도상이 시대와 지역 따라 어떤 변화를 갖는지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 개심사목조아미타좌상 보물 지정

#### 문화재청, 봉정사 목조관음상 등 5건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9월 1일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중요문화재 5건을 국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2-13세기 조성됐다. 고려 후기 목조불상 가운데 최고(最古)로 추정되며, 조각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불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동 봉정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은 1199년에 처음 조성돼 1363-1364년 사이와 1751-1753년 사이에 중수됐다.

여러 개의 나무를 접합한 접목조 기법(接木造技法)으로 조성된 불상의 눈은 수정을 감입했다. 아직 고려 양식으로 변모하지 않은 이국적인 풍모, 긴장감 넘치는 옷 주름 등은 고려후기 새롭게 대두하는 신고전주의(新古典主義) 불상 양식의 시원적 형태를 간직한 상으로 평가된다.

조동섭 기자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삼존불 점안 및 부처님 진신사리(36과) 이운 대법회

모시는 글

귀의 삼보 하옵고

강원도 평창 약수사가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불사를 원만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덕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계절에 **삼존불 점안식 및 부처님 진신 사리(36과)이운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무무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지 **혜명** 합장

**점안일자 : 2009년 9월 20일 일요일**  
**점안시간 :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약수사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289번지)**  
**문 의 : 033) 332-3623 / 010-4621-2915**